

#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과 정책과제

인재가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모하려면

## ‘수도권만 바라보는 지역인재’

바야흐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재전쟁·두뇌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확보 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 집약형·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인재들의 행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년 비수도권 대졸자의 약 3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특히 충남은 66%의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인재들의 수도권 빨대현상으로 충남을 포함한 많은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다. 왜 지역인재들은 수도권만 바라보는 걸까?

## ‘충남, 고(高)유인역량·저(低)양성역량의 역외인재 의존형’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다른 지역 인재를 자석과 같이 빨아들이는 유인환경을 구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교육 및 능력개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충남의 인재확보 종합역량(유인+양성)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아 16개 광역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결코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하지만 인재의 유인역량과 양성역량 간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반면, 역내인재 양성역량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9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충남의 인재확보역량 유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외인재 의존형’으로 분류됐다. 충남은 지역 인재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역외인재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충남이 언제까지고 지역성장을 지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충남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산업이 경기침체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역외인재를 지금처럼 유입할 수 있을까?

##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본 연구의 결과, 관용성이 넘쳐흐르고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이 고학력자·창의인재·R&D인재·지식기반산업인재 등의 고급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충남이 관용성 확충 방안으로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향후 충남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특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R&D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인력에게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와 기업체의 R&D기능을 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인재들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직장과 거주지, 배움과 놀이가 복합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 일체형의 혁신지구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과 같은 역외인재 의존형은 역내인재의 효율적인 양성을 통해 인재 비교우위형으로 이동 가능하다. 충남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재의 수급상황을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의 위기관리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키위새는 날개가 있어도 퇴화해 날지 못한다. 굳이 날지 않아도 먹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서식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충남도 일자리를 찾아오는 역외인재들에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저자 \_ 산업연구원 허문구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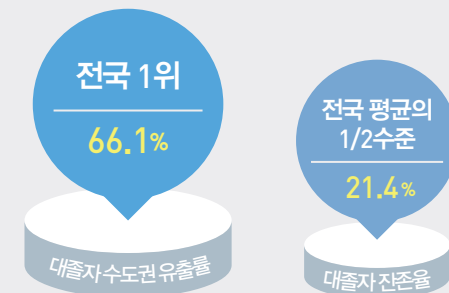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 ● 수도권으로 Go! Go! 지역내 인재유출 High

※자료 :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년)



## ● 인재와 기업입지·고용·지역성장간 관계

